

생태미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전통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도가사상을 중심으로 -



실내디자인 전공 박사과정
도리리리리 양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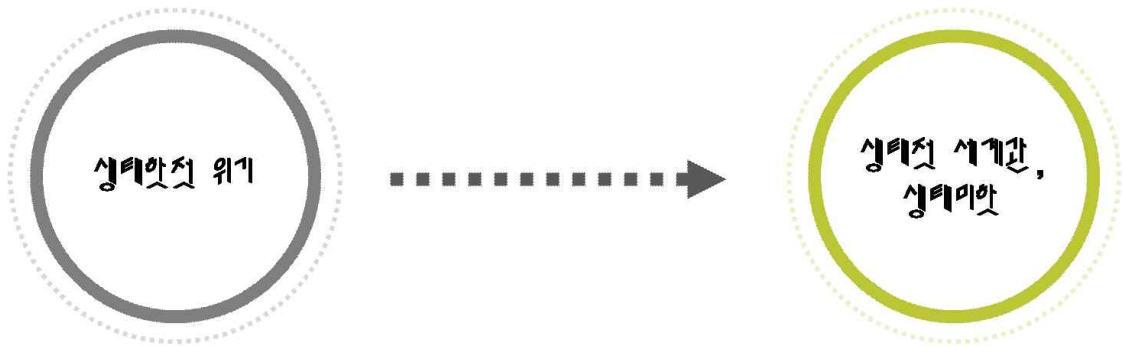
생태미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전통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들어가는 글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에 대해 생태학자 쾨헬바하(H. H. Künzelbach)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의 근본과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세계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설파한다. 그 이유는 생태학적 위기는 인간이 조상한 것이므로, 생태학적 위기는 바로 인간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원은 과학, 기술이 아닌 인간의 잘못된 생각 속에 있다고 한다. 현재 생태학적 위기와 관련하여 제기 되는 원인으로는 데카르트적 이원론 기계론적 자연관, 인간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 등이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관점은 일원론적인 형이상학, 유기체적 자연관, 생태중심주의, 대안 이성에 대한 탐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대안적 관점은 서구의 전통적 사유 속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고 동양적 지혜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시도로 나타났다. 즉 서양문명의 중심적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원론적 형이상학, 인간중심주의, 자연지배적 태도, 분신적 - 단론적 사유와의 달리, 동양적 전통을 특징짓는 일원론적 형이상학, 자연중심주의, 자연친화적 태도, 종합적 - 직관적 사유의 길이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양적 세계관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새로운 등장한 생태적 세계관의 패러다임과 함께 미래의 미학적 디자인 대안으로 생태미학이 형성되었다. 생태미학은 그 뿌리를 생태학과 생태학적 미학에 두고 있으며, 생태학과 미학을 공통의 뿌리로 보는 학문이다. 생태미학에 근거한 환경 예술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 속에 들어오고, 예술도 스스로의 기능과 역할을 생태계 전체의 유지와 연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생태미학의 저소 가능한 순환위리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에너지의 순환적 행은 에너지 질감과 같은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생태학적 위기의 문제 해결로 등장한 동양적인 세계관을 미래의 미학적 디자인 대안으로 대두되는 생태미학과 연관시켜 동양의 사상을 그 바탕에 둔 동양의 관점에 생태미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계하여 본 연구는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한 생태미학을 자연과 기묘한 관계를 이루어온 동양의 건축과 연관시켜 보자 한다. 동양의 전통주거 공간은 자연도 건축의 한 부분으로 인공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융화의 공간이다. 본 연구는 전통주거 공간이 일상 중심의 의식체계와 사상이 담긴 삶의 공간으로 단순하기 시작적이거나 조형적인 특성이 아닌 삶을 영위하는 장소로서의 특성을 충실히 따져본다. 이 특성에 중요한 디자인 개념인 역사, 전통, 기억, 의미, 장소성, 이미지, 상상, 신념, 환경지각, 인지, 행태, 등을 바탕으로 생태미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생태 미학적 관점으로 전통주거의 표현방법 및 특성에 파악하여, 전통주거의 새로운 접근 방법과 생태미학의 가능성에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생태학적 위기는, 생태적 시계관의 재디자인과 생태미학을 형성하였다. 또한 동양적 시계관과 전통적 사유에 관심을 갖고 그 이질성을 참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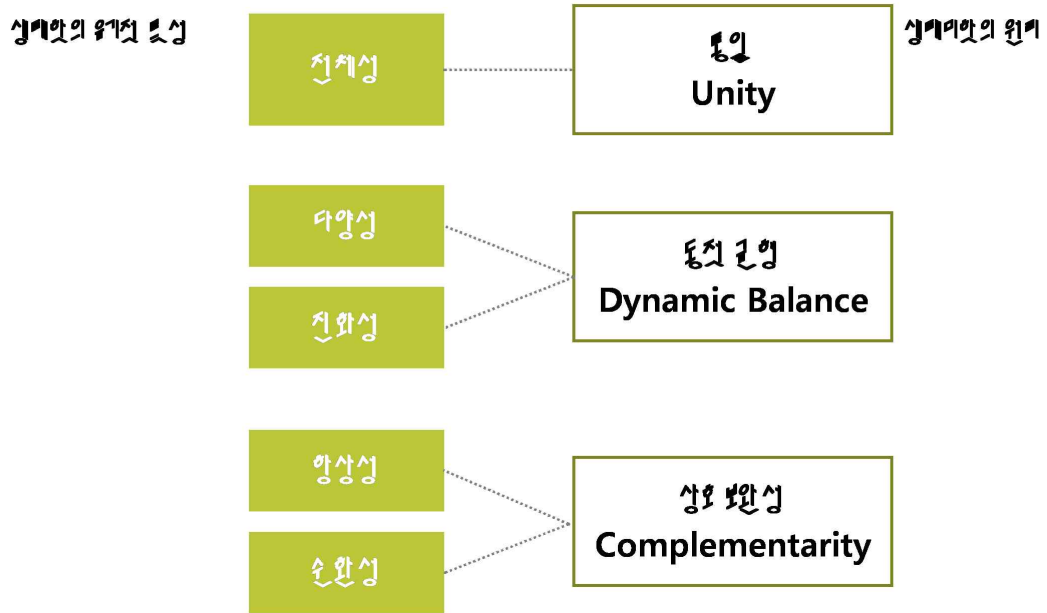
동양의 전통 사유를 통하여 생태미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생태미학의 원리

<p>통일 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의 존재의 조화 및 이치에 관한 관계 - 자연의, 문화의 환경과의 통일
<p>동적 균형 Dynamic Bala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 변동을 개념 및 동적 균형 - 진화와 실재의 다른 세계 - 진화의 힘과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유연한 접근 - 질서와 무질서의 동적 균형
<p>상호 보완성 Complementar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과 진화가 상호보완을 이룬 유적 세계 - 비가시적 초연성 상호 보완적 세계 (생태미학의 재자연화 반영) - 물질과 마음의 상호보완 - 인간 + 자연, 전통 + 초경, 실재 + 실외 생태의 통합

생태미학의 원리인 통일, 동적균형, 상호보완성은 미국의 생태미학의 거장 Ian Mcharg 교수의 의해 제안된 생태학잡지(1978)에 근거하여 Dr. Koh Jusuck의에 구체화 되었으며, 이러한 세 가지 디자인의 원리에 기초하여 전통을 자연과 서로 진화적 조화를 하는 대체환경을 보았다. 위의 3원칙은 생태계디자인의 1982년 제안되었으며, 1987년 생태 디자인론으로 발표되었다.

생태미학의 원리개념 전개 과정



생태미학적 디자인 적용

환경친화적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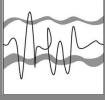

생태 디자인

생태미학적 공간 디자인
 지속 가능한 건축
 생태건축

⋮

생태미학적 위기로 생태학, 환경, 자연에 관심은 생태적 패러다임과 생태미학을 형성. 이러한 개념은 자연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자연에 대한 미적인 인식 체계를 바꾸며 자연과 공존,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지향한다. 이와 같은 흐름은 디자인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적용 발전되고 있다.

생태계의 유기체적 특성 5가지와 생태학적 디자인 개념화

<p>전체성</p>		<p>a(전환점)와 b(생태계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시 모든 개체)가 일어지며, 이는 a와 b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a-성, b-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맥락은 연결 - 저임시세의 활용 · 도시의 맥락은 연결 - 주변건물/인프라와의 관계 · 자연모양과 인공모양의 조화 · 내, 외부 공간의 연결
<p>다양성</p>		<p>자연 환경에 다양한 형태를 존재, 적응이 다른 에너지 없이 처리하도록 되었을 때 인공이 추가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다양성 - 녹지공간/프로그래밍의 임성 · 구조의 다양성 - 자연의 구조에 따른 구성 · 자연의 영에 대응
<p>진화성</p>		<p>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환경에 변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과 유기체의 진화 - 식물과 건축의 일체화 과정 · 건축물의 Aging 과정 - 생애주기/리노베이션 · 공간의 유기체적 진화 · 노자의 도일
<p>항상성</p>		<p>공변하는 환경 변화에 반력의 영향을 받아, 원동력으로 가지면서 자신의 상태를 조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보전의 디자인 - 물성의 보전 · 에너지의 보전 - 에너지의 취득과 손실 · 물리적 환경변화를 통한 불확정적 프로그래밍의 적용
<p>순환성</p>		<p>건축물과 물질 계급 에너지의 순환의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상호보완 - 시간과 맥락에 따른 상호작용 · 퇴역의 매커니즘 - Feed Back을 통한 환경적응 · 완충장치를 활용 - 외부의 충격에서의 완충성 · 자원,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애프터라이프의 적용

생태미학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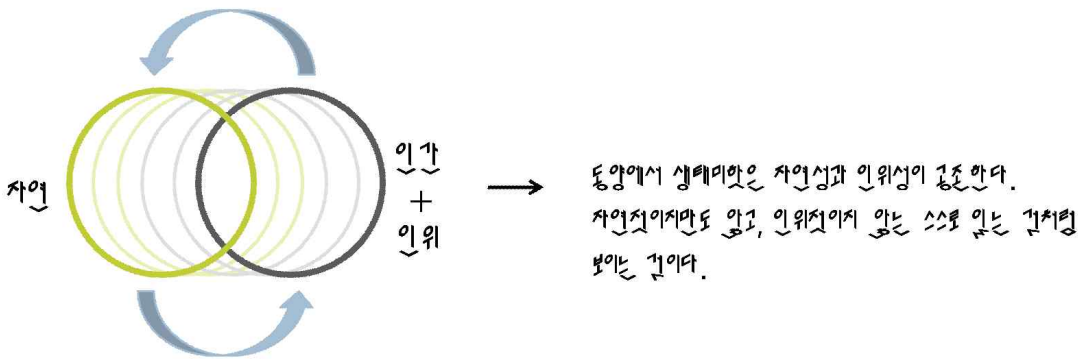
<p>통일 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도립적 존재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 - 자연적, 문화적 환경과의 통일
<p>동적 균형 Dynamic Bala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체 변동은 개체의 안 동적 균형 - 진화와 실재에 따른 체계 - 건축의 설계와 디자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점 - 질서와 무질서의 동적 균형
<p>상호 보완성 Complementar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과 전체가 상호보완을 이룬 유기적 체계 - 비가시적 측면은 상호 보완의 체계 (생태학의 자각은 반성) - 물질과 마음의 상호보완 - 인간 + 자연, 건물 + 조경, 실내 + 실외 생태적 통일

생태미학의 원리인 통일, 동적균형, 상호보완성은 미국의 생태미학의 거장 Ian Mcharg 교수에 의해 제안된 생
태건축론(1978)에 근거하여 Dr. Koh Jusuck에 의해 구체화 되었으며, 이러한 세 가지 디자인의 원리에 기초
하여 건축을 자연과 시공 진화적 적응을 하는 생태환경으로 보았다. 위의 3원칙은 생태건축이론 1982년 제
안되었으며, 1987년 생애 미학으로 발표되었다.

자연도입 방법 및 표현 방법

	유형적 요소	무형적 요소
요소	저명, 노저, 문 등 직접적인 자연 요소	공기, 기후, 소리, 빛, 기온, 생활양식과 같이 직접적으 보이지 않는 요소
관계 형성	조합적의 관계	공존적의 관계
도입 방식	직접적 도입	간접적 도입
표현의 특징	꿈, 열매, 위서, 배서양식 등 자연이 은유하는 형식	시선조각, 맥락화장, 중심, 공간적 형식 및 표현
	조합적 측면에서 유형적의 자연이 은유	공존적 측면에서 무형적의 자연이 은유

동양의 생태미학 사상



인위는 은전도 없이 사라져 인위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자연과 인위를 결합하여 더욱 더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였다. 동양에서 생태미학은 자연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예술, 건축 공간 시도가 함께 섞이며, 공존하는 의미를 한다.

생태미학의 특성

생태미학 특성

무위천 위위



- 중요한 비유
/ 자연의 자연스러운 양은 무(無)에서 유(有)로 이렇듯 공간을 만들어, 무(無)와 유(有)는 동시에 공존한다.

시공간의 무안화



- 시간과 공간의 무안화
/ 시간이란 공간과 물질에 의해 변화를 인식하는 것일 수 있다. 시간은 곧 공간이 되며, 공간은 물질의 운동과 변화에 이르게 된다.

자연과 상생



- 자연은 상생
/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길게는 소리와 함께 생활, 생업이 생겨나는 것.

변화와 순환



- 변화와 순환
/ 말하고 사라져서 변화하는 완성의 형(形)은 시간과 공간, 자연을 순환시키는 이를 더듬음 이룸.

자연도입 방법 및 표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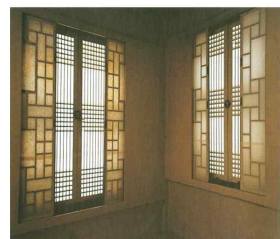
직접적 도입
(유입식, 무입식 요소)

- 자연에 순응 / 자연과의 무위천 공존
/ 자연과의 접촉 최대화
- 건축은 자연요소와 밀착
: 내부공간과 개방형 외부공간 자연의 도입,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는 직접, 창상의 일련성 인간 외부와의 접촉
- 내부에서 시선처리에 의한 자연공간 직접
- 가공하지 않은 자연재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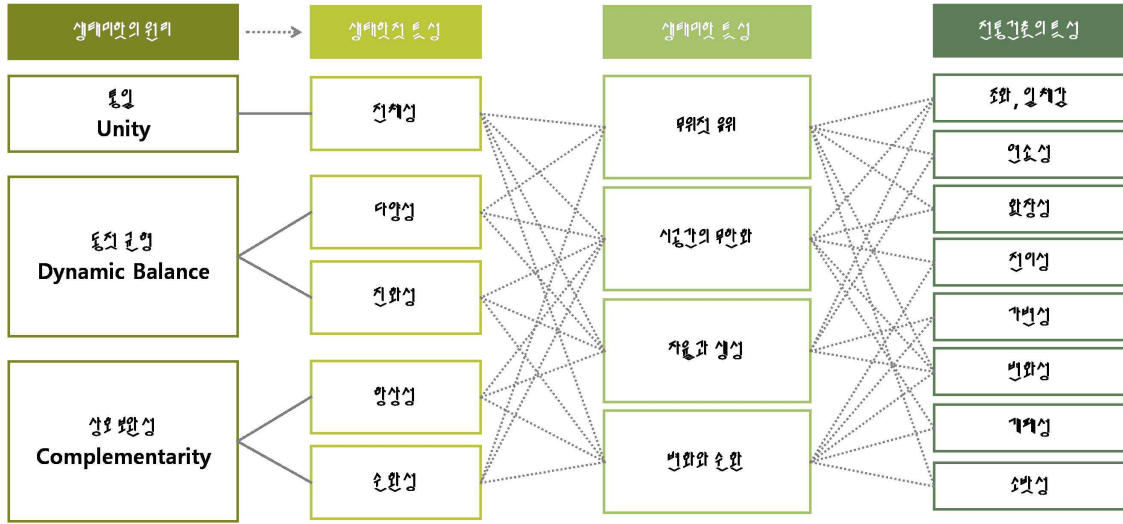


유입식 요소
(무입식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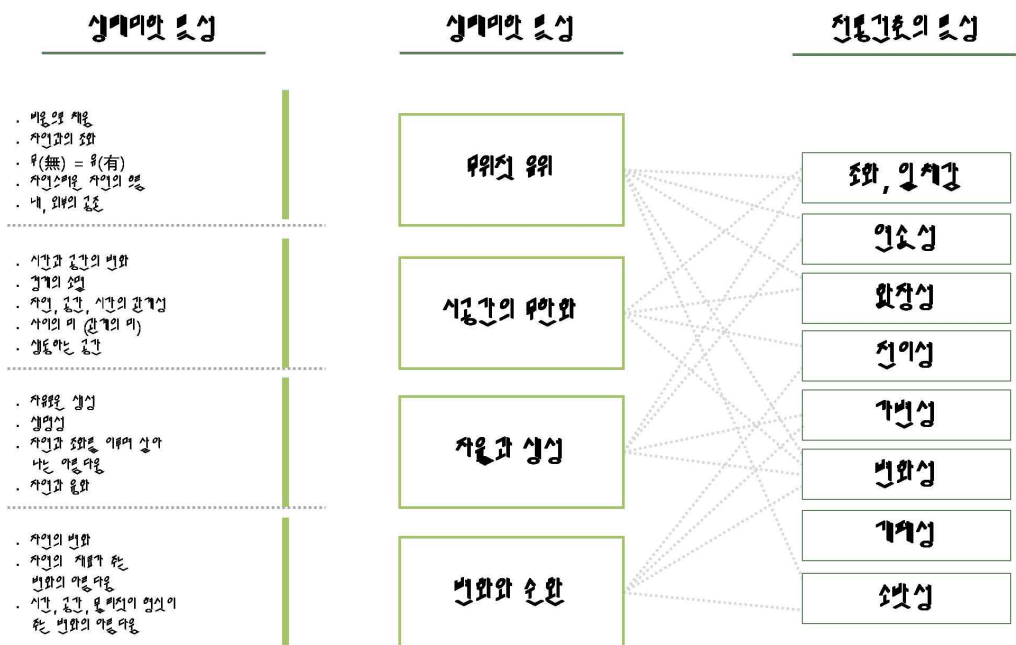
- 빛과 자연의 요소가 창호제를 통하여 걸러서 유입 : 빛과 창호에 적용된 안개막, 자연의 소리를 여과하여 유입하여 자연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함.
- 반투명성의 창호제는 부자연스럽게 완성되는 빛의 여과 막과 같, 창상으로 빛의 유입량 조절, 낮에는 창상의 자연재료 운동의 경계 등을 실내에 투입시키고 밤에는 창상의 실루엣과 나뭇가지, 인사귀 등의 경계로 정취 있는 간접적 자연을 내부로 도입



상태미학의 도통과정과 연계성



상태미학의 특성과 전통건축의 연계성



전통공간의 생태미학적 표현특성

(1) 위치의 의미

전통공간에서 비움은 서양의 빈(Void)공간과는 다르게 기(氣)가 충만한 공간이다. 비움은 오히려 한 것이 아니라 비움은 무(無)와 유(有)를 강조 하였다. 비움은 비움으로 채워진 공간이다. 즉 충만한 비움이 되는 것이다. 고정화된 기능으로 구성되는 공간이 아니라 비워 놓으면서 다양하고 충만하게 구성되어 지는 공간이다. 전통 공간에서 이 비움의 공간은 자연과 공존하고자 하는 표현 방식이기도 하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자연에 강제성을 두지도 않는다. 비움의 공간은 자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한다.

동양의 순환적 물질과 공간관은 물체와 비어있음의 대대적(對待的) 개념이 아닌, 비어있는 물질의 체계로 생명의 기운이 차이는 허(虛)를 추구하였다. 그것은 비어 있음으로 비어 있음으로 이룬 관계적 실체로서 항상 자율적이고 편안한 상태로 인간과 자연의 원리와 같은 이(理)와 기(氣)의 충만한 상태를 조망하려 하였다. 전통주거 공간은 무(無)와 유(有), 허(虛)와 실(實)을 가지고 있다.

공간을 비움으로 내부가 고정된 내부의 형식을 갖고 있지 않다. 비워진 공간은 공간을 형성하는 형식적 요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 그 공간 안에 질과 공간을 경험하는 경험적, 정서적인 요소와 영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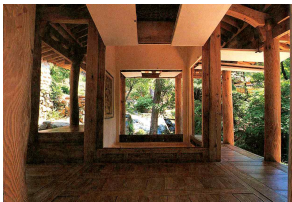
이러한 전통공간에서 비움은 공간에 자연을 내부로 유입하고 또 그 자연의 흐름을 느껴 그 공간을 더욱도 충만하게 하는 차원까지 느끼게 한다. 전통 공간에서의 비움은 채움이 된다. 그 채움을 가두기 위한 채움이 아니라 자연으로 유입되고, 자연을 유입하기 위한 욕심하지 않는 자연에 향한 공간에 태도이다. 자연과 공간의 경계는 소멸하게 된다.



소쇄원



부왕동 별서



소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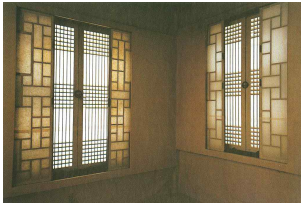


부왕동 별서

벽은 모두 움직이는 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움직이는 형식을 통하여 벽은 모두 사라져 공간을 비우는 형식으로 보이지만, 공간은 곧 소리, 바람, 빛, 자연이 흐르며 곧 마음으로 채워진다.

이 건축물에서 공간은, 공간과 자연, 인간,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통한다.

가벼워진 벽의 구조는 공간의 본질을 비움으로 본 결과이다. 가벼워진 벽은 자연과 소리, 빛, 바람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또한 가벼워진 벽을 프레임으로 자연을 관망하며, 자연은 한 폭의 그림으로 공간에 살아 있게 된다.



온강고택 안채

본질로서의 비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간은 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빛과 소리와 같은 형식으로 공간은 채워지게 된다.

(2) 시공간의 변환

전통공간에서 사이(間)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사이의' 미는 관계적 미라고도 말할 수 있다. 공간과 공간, 건축물과 건축물, 공간과 자연, 건축물과 자연, 건축물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아름다운 표현한다. 건축물과 공간으로부터 자연과 인간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전통공간에서의 '사이'는 채와 채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큰 작은 공간연의 틈, 그 공간연 빛, 자연을 끌어들이고 통로이다. 이러한 틈은 고정화 되어있거나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다. 건축-공간-인간-자연의 것 갖의 요소들이 레이어 되면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감정의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자연 지형에 순응하여 건축은 대칭적 비대칭의 건축적 관계 형성과, 배치의 불규칙적인 질서는 자연과 관계를 갖으며 불편한 모습이 아니게 된다. 관계를 형성하며 공간은 연속성, 전이성, 다양성, 공간간의 완화, 조절, 완충, 매개의 역할을 한다. 이렇듯 '사이'의 미의 형성은 공간을 더욱더 강성화, 집시적으로 만든 역할을 하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을 나타낸다.



온중고택



추사고택



운중고택

▣ 자형의 평면을 가진 운중고택은 건축물과 건물이 만들어 내는 틈으로 건축물과 자연이 관계성을 갖는다. 하늘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바라보며 자연과 소통하며 확장 한다.



추사고택



독락당

지형지세에 따라서 비대칭의 균형을 맞춰 건축물을 구축하였다. 대칭적 비대칭의 조화를 이루어 공간의 전이적 효과를 갖는다.



양진당



정병문각옥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생겨난 이등 공간은 틈과 같이 존재하며, 공간에 흐름에 따라 전이성을 갖으며,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틈 사이로 인간과 자연은 자유롭게 만나며 공간은 다양함을 갖게 된다. 틈과 자연, 인간, 건축물은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

(3) 자연과 생성

동양사상에서 율하는 자연과 인간, 공간, 예술이 합(합)을 이루어서 어느 하나 따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려 하였다. 전통건축은 자연과 조화롭고자, 자연지형을 허물지 않고, 지형지세에 순응하는 형식으로 건축물을 형성하였다. 위의 <경 6>에서 보이는 소쇄원 자연 지세를 좇아 자연스러운 단차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모두가 땅의 모습에 귀애된 율이 순응하여 조화롭고자 한 것이다. 또한 집원에 자연을 인위적으로 꾸미는 이기보다는 차경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멀리 있는 자연을 관망하고 꾸미는 것이다. 즉 자연을 파괴하면서 미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연과 미를 별개가 아닌 하나로 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건축과 자연이 잘 융합되어 심지어 건축이 자연의 일부인 것과 같은 조화됨을 갖는다.

전통건축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기후와 자연 조건이 비교적 온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약처럼 자연보다 더 웅대한 공간을 지향하기 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통건축에서 율하는 단순한 자연과의 조화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의 변화와 함께 변화는 진화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봉동별서



소쇄원



부용동 별서

자연의 지세에 순응하여, 지형을 좇아 자연스러운 단차 변화를 주며 건물을 형성하거나, 땅에
 구애 없이 건물을 형성하는 지형에 순응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건물을 웅대함을 지향하기 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 하였다.



소쇄원

인공적인 건물은 자연을 파괴하며 아름다움을 갖으려 하지 않고, 자연과 자연스럽게 융합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전통건물은 자연을 억지로 내부로 끌어들이려 함을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을 관망하고 멀리되면서
 바라보는 것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정여창 가옥

자연은 공간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고 나면서 자연과 인간과의 합을 이루며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남간정사

(4) 변화와 순환

전통건축에서 변화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시간적, 공간적, 현상적 형식과 물리적인 형식 등을 가지고 있다. 변화 문과 창이 많은 표현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과 문의 열리고 닫힘, 질고 펼쳐 올리는 행위를 통하여 공간은 내부의 외부화, 외부의 내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질고 펼쳐는 행위의 반복은 전통주거에서 '변화의 미' 또는 '질림의 미'라고 말할 수 있다. 변화의 미는 공간에 다양성과 개방성, 연속성, 변화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자아낸다. 창과 문의 열림과 닫힘, 질고 펼쳐는, 올리고 내리는 행위를 통하여 공간에 개방성과 폐쇄성을 표현 할 수 있다. 공간의 열림은 자연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그 내부를 통하여 다시 자연으로 흐르는 흐름을 강하게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낮과 밤에 따라 또 다른 변화를 표현하게 된다. 낮에 닫힌 문과 창에 한지를 통해 들어오는 빛과 밤에 닫힌 문과 창에 한지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의 실루엣은 같은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느끼게 한다. 또한 창과 문에 있는 한지는 질고 펼쳐고, 열리고 닫히는 행위의 반복 속에서 계절으로 생겨나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문과 창은 자연을 실루엣으로 비추기도 하고, 소리와 빛, 바람을 한지, 창살과 같은 걸음 통하여 여과되어 공간 안으로 흐르게 따라 공간은 더욱 더 많은 관계와 변화를 갖게 된다.

문은 반복적인 한가지의 형식만을 가지고 무한대로 변화한다. 개방적으로도 폐쇄적으로도 만든다. 자연은 연속적, 직접적으로 공간에 들어 오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유입되어 공간 안에 머물게 되기도 한다. 가변적이면서 서로 연속되는 공간은 마치 보자기를 접거나, 구겨 넣어도 되는 실용성과 포용성, 넉넉함으로 공간을 더 풍요롭게 한다.



부동동 별서



소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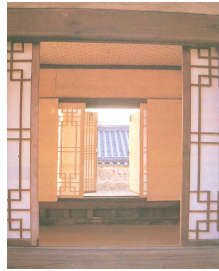
맹사성 고택



부용동 별서

문은 반복적인 한가지의 형식만을 가지고 무한대로 변화한다. 개방적으로도 폐쇄적으로도 만든다. 자연은 연속적, 직접적으로 공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유입되어 공간 안에 머물게 되기도 한다. 가변적이면서 서로 연속되는 공간은 마치 보자기를 접거나, 구겨 넣어도 되는 실용성과 포용성, 넉넉함으로 공간을 더 풍요롭게 한다.

문으로 공간과 공간을 레이어 되며, 개방과 폐쇄성을 갖게 된다. 또한 공간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곁을 하게 된다.



응흥궁 사랑채



부용동 별서

접고- 펼치고- 올리고, 공간은 문의 가변성으로 다른 공간과 연속적으로 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단히기도 한다.



정여창 가옥



선고장



독락당

(도) 쇠뿔의 미

자연 재료를 사용은 생태미만 뿐만 아니라 생태 디자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자연 재료를 단순하게 건축의 재료만 본 것이 아니라 '미(美)'와 에너지의 순환체계까지 고려하였다.

전통주거에서 표현되는 '소박한 미'는 무기묘의 기교로 단순하면서도 변화하는 아름다움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다. 전통에서 소박성(素朴性)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남의 눈에 띄고자 하는 욕망이 배제된 순수하고 경이함으로 말한다. 포용성(包容性)은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를 인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형물의 형성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형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인 지극히 자연적인 변화의 미를 의미한다. 재료의 사용이나 구조에서도 크게 공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어냈으로써 쇠뿔강의 진수를 느끼게 한다. 사대부

주객은 공을 들어 지으랴서 비교적 정교하고 정갈한 느낌을 주지만 거처장이나 규모에서도 결코 도를 넘치지 않았으며 소박함의 진수를 느끼게 한다. 주객의 내벽공간은 그 귀심요소인 빈, 바닷, 천장을 둘러보아도 재를 자체에서 온 자연스러움이 있을 뿐 장식적 기교가 넘치지 않는다. <경향, 온강고택>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무늬가 없는 한지만을 사용하였지만, 빈이라는 자연소재와 기교가 없는 재료가 만나 변화하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경향전당>은 나무만을 이용하여 단순한 형태를 갖추었지만 나무가 스스로 표현하는 아름다움으로 탁기교함과 저절로 자연적인 변화와 표현의미를 자연과 대립되지 않는미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소박함은 재를 자체를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사용함에 있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는 자재미(自在美)를 갖고 있으며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동양의 사상을 바탕으로 삼태미학의 특성을 비움의 미, 사이의 미, 음화의 미, 변화의 미, 소박의 미로 정리 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양전당



온강고택



송소 고택



남간정사

외부 색이나, 장식을 절제하고 재료의 본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수수하고 자연적인 변화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중도당



세연정

나무와 돌이 맞닿는 부분역시 돌과 나무를 반듯하게 가공하기 보다는 돌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나무와 연결하여 질박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자연의 흰 형태까지도 그대로 사용함으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장식을 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나무와 창호지는 목망이 배제된 순수하고 겸허한 미를 주고,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은 그 어떤 기교보다 더 아름다운 변화의 미를 갖는다.



연경당



일도 정여창 가옥

마치는 글

오늘날 현대사회는 생태적 위기, 환경 파괴, 자원의 고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을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과 개인을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생태학적 위기에 대해 생태학자들과 쾨헬바하(H. H. Hinzlbaeh)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의 근본과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세계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 이유는 생태학적 위기는 인간이 조상한 것이므로, 문제의 근원은 과학, 기술이 아닌 인간의 잘못된 생각 속에 있다고 하였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생태학적 세계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었으며, 생태학적 사고, 미학, 디자인에 있어서도 중요한 모티브이자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동양적 세계관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새로운 등장한 생태적 세계관의 패러다임과 생태미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태미학에 근거한 환경 예술은 인간의 변형적인 삶 속에 들어있고, 예술도 스스로의 기능과 역할을 생태계 전체의 유지와 인간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것이다. 또한 생태미학의 최소가능한 수완위리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에너지의 순환적 영은 에너지 질감과 같은 경험적영향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생태학적 위기의 대안으로 생태미학과 동양사상에 대한 관심이 계속어지고, 생태미학을 동양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에 따라 생태미학의 과정을 도가적인 측면에 두었다. 그리고 도출한 특성을 한국 전통 공간을 통하여 그 표현 특성을 분석하여 생태미학과 전통 공간의 특성과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생태학적 미학은 통일, 동적 균형, 상호보완성의 원리로 자연과 공간, 인간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3가지 원리는 생태학적 유기체의 도가지 특성을 통하여 디자인적인 개념화로 그 적용 범위나 표현 방법은 다양화 할 수 있다.

둘째, 전통 공간에서의 공간과 자연은 융합적, 무형적인 요소 직접적, 간접적으로 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전통 공간에서 인간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고자 하였으며, 자연을 인위적으로 공간 안으로 당기 보다는 자연을 관망하는 여윌 갖고 있었다. 동양의 도가적인 사유에서 자연과의 융화는 삶 자체였던 것이다.

셋째, 동양의 자연관을 생태미학의 원리와 생태학적 유기체의 특성을 적용하여 그 표현 특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도가적인 측면에서 생태미학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특성을 바탕으로 도가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전통 공간을 선정하였으며, 도출한 특성을 통한 사례 분석으로 공간 표현 특성의 다양성과 자연과의 융화되는 다양한 형식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넷째, 도가적 생태미학의 특성이 도출되었던 특성을 한국 전통 공간을 통하여 분석해보 결과 전통공간은 자연과의 융화하고자 공간을 비웠다. 비움으로 채우고, 관계로 자연과 조화를 이뤄내며, 전통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은 무한함을 갖고 있으며,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 합(승)을 이뤄내다. 자음적인 생기는 소멸과 생명의 반복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력이 생겨나고, 단순한 반복을 통하여 자연과 공간을 변화 할 줄 알았으며, 자연이 주는 변화를 받아들여 융화하는 법을 알았다.

이상의 연구는 새로운 미학으로 논해지고 있는 생태미학은 자연과 공간, 인간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융화하는 삶을 살고자 한 동양 사상과 지혜를 통해 살펴보면 새로운 기만 한 미학은 아니다. 전통 공간에서 생태미학은 우리의 삶속에 예술적인 존재로 변형적인 형태를 갖춘 표현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생태미학을 동양사상과 전통 공간을 통하여 그 특성을 찾아 본 다음과 같은 결과들은 앞으로 현대 사회가 갖는 생태계,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통공간의 창조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계승 되어 질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하였고, 생태미학의 연구를 통하여 자연과 공간,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과 생태미학의 가능성을 찾고, 최소가능한 미래 디자인 대안으로서 그 중추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